

대외적 충격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신동호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1장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외적 경제환경변화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겪는 애로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권의 대출심사 강화와 자금정색으로 인한 금리인상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환율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국내 내수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시키며, 추가하락은 국내 소비 및 기업심리를 냉각시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다. 이러한 기업심리와 소비심리의 위축은 국내경기의 둔화로 이어지고, 여기에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요인이 더해져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과 이로 인한 내수침체는 중소기업의 생산둔화를 야기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은 내수침체와 신용경색으로 가동률과 업황이 크게 하락하였고 어음부도율 역시 급증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국제원자재가격 급등과 수급불안정

으로 중소기업은 막대한 생산차질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는데, 이는 독과점 원자재 공급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상승에 기인한다. 특히, 납품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 반영이 어려워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충남도 내 중소기업들에게도 예외 없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험하였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환율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상시적인 경영애로를 가중시켜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어음부도율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원유 및 원자재가격 급등은 기업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외부적 충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중심의 지역산업구조를 가진 충남의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기업환경은 더욱 열악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충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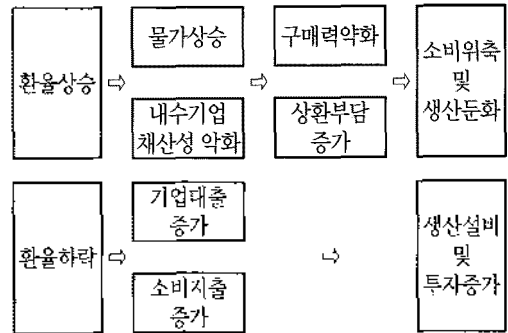
대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흡하다. 즉, 경기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외부충격으로 인한 경기둔화 시 자금조달여건 및 채산성이 악화되어 도산의 위기에 내몰리는 등 경영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더욱이 경기침체 시에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시적인 경영애로정도를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다시 말해, 경기대응력이 부족한 충남도 내 중소기업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애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환율변동, 금리변동, 유가 및 원자재 가격변동 등의 대외적 충격이 어떠한 전달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전달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물현황을 토대로 알아보고, 끝으로 제4장에서는 대외적 충격 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2장 대외적 충격의 전달 경로

1) 환율변동의 전달경로

환율변동은 한 나라의 경상수지, 물가,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폭 넓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환율상승은 수출가격경쟁력을 높여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수입물가의 상승을 초래하여 국내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환율변동은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경로는 수출입 증감을 통한 경상거래 경로 이외에도 기업의 대외 채권 및 채무의 환산금액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차익 등 자본거래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2-1] 환율변동의 전달경로

일반적으로 환율이 변동하면 수출입단가와 수출입 물량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출입 기업의 채산성과 매출액은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달러표시 수출단가와 수입단가의 조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출기업에게는 수출액을 증가시키거나 채산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수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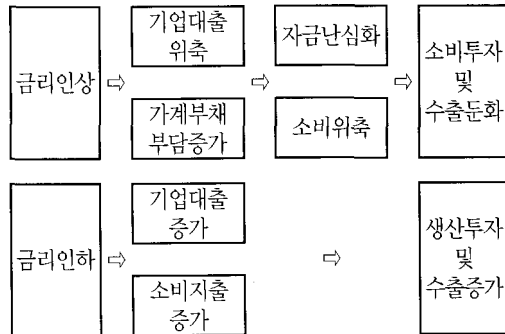
가를 조정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해외수출기업과 국내 수입기업은 수입상품의 국내 매출량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채산성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수입단가를 조정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금리변동의 전달경로

금리변동은 자본축적을 위한 저축과 기업의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실물부분과 통화부분에 연계되어 실물경제의 과열된 경기진정과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금리의 상승은 실물부분에서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되어 경기를 진정시키게 되지만, 금리의 하락은 가계의 저축유인을 낮춤으로서 소비지출의 증가와 기업의 자금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이 낮아지게 되어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에 따라 실물경제에 대한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금리의 하락은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동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금리하락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커져 토빈의 q 과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기업이나 개인은 설비투자와 소비지출 증가를 유발하게 되어 경기가 활성화되며, 또한 실물자산인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부의 효과에 의해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주택가격의 상승은 가계신용 증가를 야기해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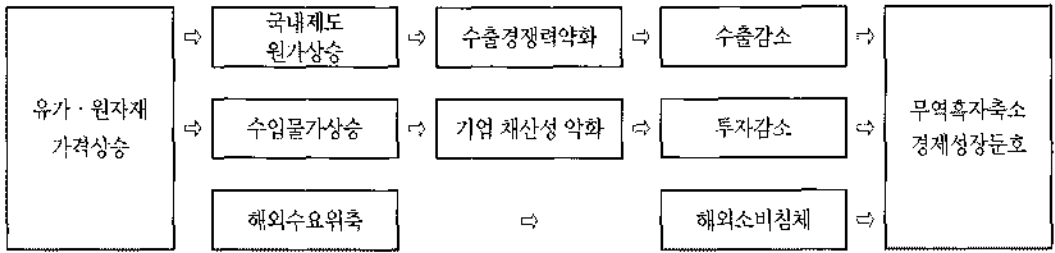
[그림 2-2] 금리변동의 전달경로

3) 유가 및 원자재가격 변동의 전달 경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변동은 환율변동과 마찬가지로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가격변동은 생산원가상승과 해외수요위축을 유발시켜 수출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원유 및 원자재 수입단가의 상승은 수입을 증가시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 설비투자의 동향을 설명하는 지표로 미국 예일대 토빈 교수가 개발한 개념이다. 기업이 실시하는 설비투자가 얼마나 이윤을 나오게 하느냐라는 개념으로 기대이윤(期待利潤)을 설비자금의 조달비로 나눈 것이다. 실제로는 주식의 시가총액과 부채의 합계가 기업의 장래이윤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시가평가액을 설비경신의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양자의 비율을 구하여 산출한다. 이 비율이 1보다 작으면 기업에는 투자할 자금이 생기지 않고 1보다 크면 투자의 자금이 생긴다.

The Chungnam Review



[그림 2-3]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의 전달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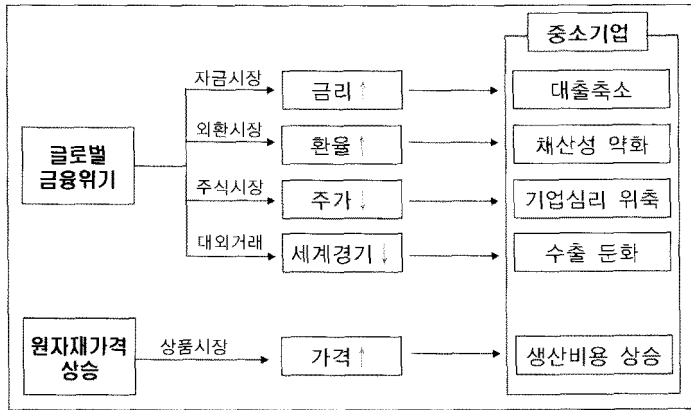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과 같은 대외적 충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그림2-3]에서 보듯이 무역수지의 변동을 통해서 이다.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이 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생산원가를 상승시키며, 외국의 해외수요를 위축시켜 수출을 감소시킨다. 또한 원유 및 원자재의 수입단가를 상승시켜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수출 감소 및 수입증가는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4)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경제는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경기에도 매우 민감하게 동조화 되어 있는 실정므로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외적 충격이 국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는 매우 복잡 다양하나, 금리, 환율, 주가 및 세계경기 등의 주요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시장에서는 외화 및 원화의 유동

성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권은 안전위주의 자산운용을 할 수 밖에 없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자금경색으로 인해 국내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져 금리가 인상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현상과 달러위주의 시장으로 인해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변동성도 더 크게 나타난다. 결국 환율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국내 내수 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 셋째,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주식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주가급락과 변동성이 확대되어진다. 이는 국내 소비 및 기업 심리를 냉각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둔화 및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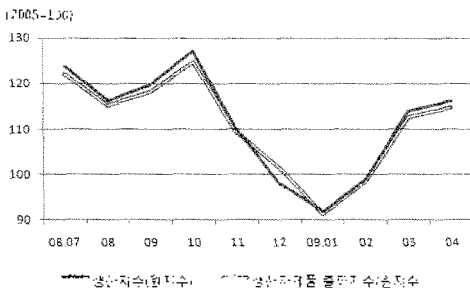
[그림 2-3]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의 전달경로

제3장 대외적 충격에 따른 중소기업 실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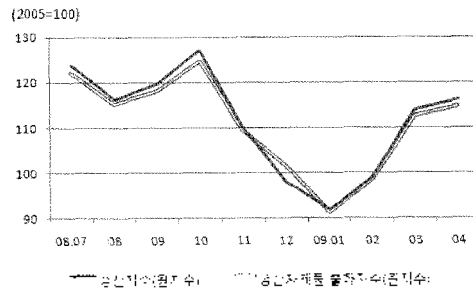
1) 중소기업 산업활동

제조업 부문의 산업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생산, 출하, 재고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악화되나 2009년 들어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제조업 생산지수는 2008년 7

월 123.8에서 2009년 1월 91.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월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다. 충남의 제조업 생산은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2009년 1월 118.5를 티닝 포인트로 하여 금융위기 이전수준 이상으로 제조업 생산이 활발해져 2009년 4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169.5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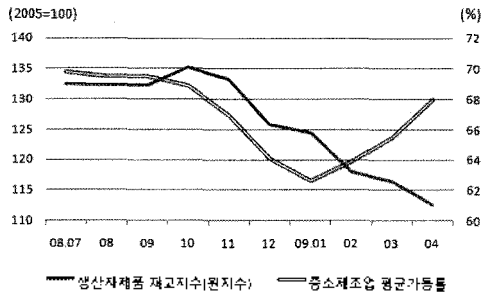


[그림 3-1] 제조업 생산 및 출하지수(전국)



[그림 3-2] 제조업 생산 및 출하지수(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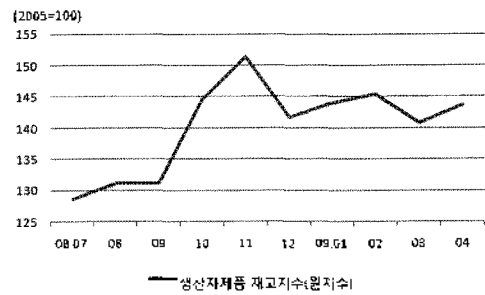
The Chungnam Review



[그림 3-3] 재고지수 및 중소기업평균가동률(전국)

자료 : 통계청

출하 및 재고수준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실물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출하지수와 재고지수는 각각 감소 및 증가하다 2009년 들어 실물경기 반등에 힘입어 점차개선 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9년 4월을 기준으로 전



[그림 3-4] 제조업 재고지수(충남)

국의 재고지수는 112.6으로 2008년 4월 132.5보다 낮아진 반면, 충남의 제조업 재고지수는 143.7로 2008년 4월 당시의 128.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3-1] 제조업 산업활동 추이단위

(2005=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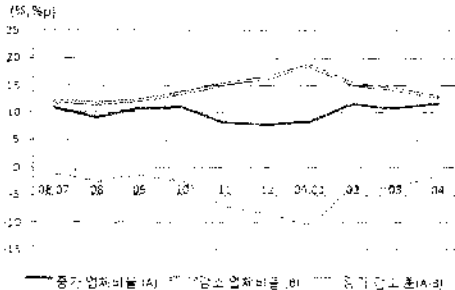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생산지수(원지수)	123.8	116.2	119.6	127.2	109.9	98	91.8	98.8	114	116.2
	생산자제품 출하지수(원지수)	122.2	115.1	118.3	124.8	109.4	101.6	91.3	98.6	112.7	114.7
	생산자제품 재고지수(원지수)	132.5	132.3	132.3	135.2	133.4	125.8	124.4	118.1	116.5	112.6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69.8	69.5	69.5	68.9	66.9	64.1	62.6	63.9	65.5	68
충청남도	생산지수(원지수)	155.2	154.5	155.9	168.2	146.6	122.6	118.5	137.3	163.7	169.5
	생산자제품 출하지수(원지수)	150.9	146.9	148.9	157.2	137.4	122.7	112	128.8	155	157.8
	생산자제품 재고지수(원지수)	128.6	131.2	131.2	144.5	151.4	141.7	144.1	145.5	140.9	143.7

- 자료 : 한국은행(2004),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2) 중소기업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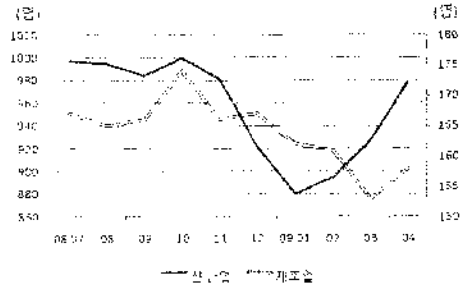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중소 제조업 고용은 감소업체 비율은 상승하고, 증가하는 업체비율은 감소하는 고용

축소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고용은 2008년 12월 증가업체비율은 7.9%로 연중 최저수준을 보이다 2009년 3월 들어 2008년 7월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자료 : 기업은행

[그림 3-5] 중소제조업 고용 추이



자료 : 통계청

[그림 3-6] 충남 제조업 고용 추이

2009년 1월 들어 감소업체비율은 18.7%, 증가업체 비율은 8.4%로 그 차이가 10.3%p로 고용수준이 가장 악화되었고, 이후 점차 개선

되어 2009년 4월에는 2008년 7월 수준으로 고용상황이 회복되었다.

[표 3-2] 중소제조업 고용 추이

구분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증가 업체비율(A)	11	9.2	10.8	11.1	8.2	7.9	8.4	11.5	10.9	11.8
감소 업체비율(B)	12.1	11.6	12.2	13.5	15.3	16.4	18.7	15.2	14.4	13.1
증가-감소률(A-B)	-1.1	-2.4	-1.4	-2.4	-7.1	-8.5	-10.3	-3.7	-3.5	-1.3

* : 고용 동향은 월중 종사자수가 전월에 비해 증가(감소)한 업체비율(%)을 산출

** : 산업별, 규모별은 전월대비 증가-감소 률(%p)

자료 : 기업은행

[표 3-3] 충남 제조업 고용 추이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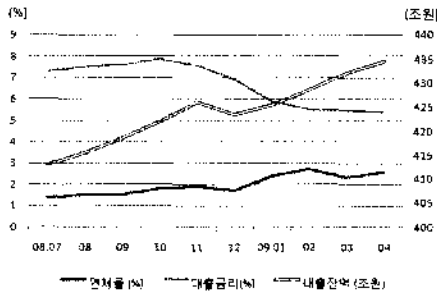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 산업	997	995	984	999	982	921	880	895	926	978
제조업	167	165	166	174	166	167	162	161	153	158

자료: 통계청

3) 중소기업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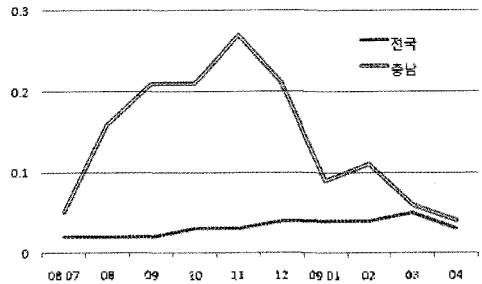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은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양호하나, 실물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대출금 상환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 4월 대출잔액은 413.0조원에서 2009년 4월 434.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연체율 역시 동 기간 중 1.4%에서 2.6%로 약 1.2%p 증가한 상황이다.



자료: 한국은행

[그림 3-7] 대출잔액 및 연체율



자료: 중소기업청

[그림 3-8] 자금사정(어음부도율)

이는 실물경기가 점차 개선되는 데 비해, 중소기업들의 금융사정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로 인해 대출금리는 낮아졌으나, 실물경기 악화로 인해 금리인하효과가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어음부도율은 전국의 경우 2009년 3월을 기점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충

남은 2월을 기점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물경기악화로 인한 어음부도율은 충남이 전국평균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4] 중소기업 대출잔액 및 연체율

구분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대출잔액(조원)	413	415.5	418.5	421.9	426	423.4	425.5	425.5	432.1	434.4
연체율(%)	1.4	1.5	1.5	1.8	1.9	1.7	2.4	2.4	2.3	2.6
대출금리(%)	7.3	7.5	7.6	7.56	7.56	6.91	5.88	5.88	5.45	5.38

자료 : 한국은행

[표 3-5] 중소기업 자금사정(어음부도율)

(단위 : %)

구분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0.02	0.02	0.02	0.03	0.03	0.04	0.04	0.04	0.05	0.03
충남	0.05	0.16	0.21	0.21	0.27	0.21	0.09	0.11	0.06	0.04

자료 : 통계청

제4장 대외적 충격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1.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탄력 적 운용

1) 경기대응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 및 규모 확대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환율 변동성 확대와 유가 및 원자재가 격을 급등시켰고, 이는 국내 신품경기를 급속히 냉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경기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음부도율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충남도는 「2009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에서 경제난 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2009년 현재, 충남도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판로 수출분야에서 총 6개 사업(약 9,400억원 규모)을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① 경영안정 자금지원, ② 기업회생자금지원, ③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④ 영세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 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⑥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사업이며, 이 중 한시적 시행을 전제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지원만이 2009년에 신규로 시행되었고, 나머지는 2008년도에 이어 시행되는 지속사

업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규사업은 단 하나에 지나지 않으나, 공공구매 촉진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지원규모(사업비)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촉발 내지는 가중시킨 환율 및 원자재가 상승과 관련한 환위험관리 및 원자재 구매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경영애로요인 해소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금번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고려한다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또한 원자재 및 원유는 산유국의 분쟁, 가격담합, 투기적 수요증대 등에 의해서도 상시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실정이며, 환율 역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언제든 큰 폭으로 변동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급작스런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환율 및 원자재가격 급등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및 규모, 그리고 관련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충남도 차원에서 기존 지원의 사업규모를 확대 시행하는 것도 유용한 정책수단이나, 좀 더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 및 원자재 확보난을 경감하기 위한 관련 정책발굴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기존 지원사업의 탄력적 운용 및 제도적 보완

현행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회생절차는 과거 법정관리에 해당되는데, 동 절차는 해당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 가치보다 높고 갱생가망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된다. 다만, 기업회생절차 중에는 해당 기업이 기존에 받고 있던 각종 정책자금이 모두 끊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법원의 판단아래 관련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경영상의 문제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 단기간에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침체 시에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더욱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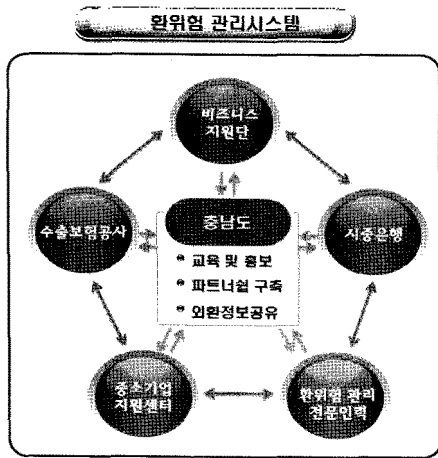
관련하여 현재, 충남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기업회생자금」을 연간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동 자금을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환율변동성 및 원자재 확보방안

1) 환위험 관리 지원방안

1 환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대전 충남 중소기업청 산하의「비즈니스지원단(2009년 3월 신설)」은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연계하고, 분야별 전문가(전문상담위원)를 상시 배치하여 온라인, 전화, 방문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종합상담하기 위한 기구이다. 비즈니스 지원단에서는 창업/벤처, 법무/규제, 금융/환위험관리, 인사/노무, 세무/회계, 경영일반, 기술/특허, 정보화, 생산관리, 마케팅/수출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4-1] 환위험 관리시스템

다만, 상담 전문가가 매일 4명씩 상주하여 총 10개 분야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만으로는 미흡할 경우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현장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위험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컨설팅이 이루어

지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도 차원에서 환위험 관리 전문인력풀(Pool)을 구축하고, 수출보험공사, 시중은행, 중소기업지원센터, 비즈니스지원단과 연계한 환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U-환율 컨설팅 지원단 신설 운영

환율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도로 예측이 어렵다. 이러한 예측의 어려움을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외부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외환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 및 외환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환율상승 시 수출 네고(nego)를 늦추고(laging) 수입 결제를 당기는(leading)시점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수출과 수입의 거래시점과 금액을 맞추어 그 차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환리스크를 헤지(hedge)하도록 한다. 다만, 환위험 헤지상품은 선물환 거래, 통화선물, 통화옵션, 통화스왑 등 매우 다양하나,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에는 비용측면이나 관련제도의 이해 등이 어려워 수출 중소기업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해당 전문금융기관들이 해지규모가 작은 영세수출중소기업들과의 거래를 꺼려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내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풀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한다. 나아가

The Chungnam Review

이를 토대로 U-환율컨설팅지원단(U-Exchange Rate Consulting Service Corps)을 구성하여 이메일, 전화, 팩스 등 on-off line 상으로 수출중소기업의 환율관리 전반에 걸친 컨설팅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중소기업청 산하의「비즈니스지원단」에서 환위험 관리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지원하되, 지원단의 규모와 지원시점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③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수출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환변동 보험은 중소수출기업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환율변동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의 환율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증거금이나 담보제공 등의 부담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변동 보험 인수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수출중소기업의 유용한 환위험 헤지수단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은 환율의 변동에 기인한 환차손과 환차익을 낮은 비용으로 일정수준에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상 안정에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변동 보험은 비용측면에서 영세 및 중견 중소기업들이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선물환과 같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전체 응답기업 중 '환율상승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

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3.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환위험 관리를 하지 않거나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이 각각 76.9%, 9.5%에 이를 정도로 환위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처럼 매우 유용한 환헤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환변동 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않다는 점은 환위험 관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 역시 중요한데, 첫째, 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투명성 및 자기자본 확충과 은행과의 관계유지가 요구된다. 즉,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자금경색 및 안전자산선호로 인한 대출심사 강화에 대비한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정세는 환율 변동폭이 크므로 급격한 환율변동 위험헤지를 위한 환변동보험을 적극 활용하되, 환헤지를 하지 않더라도 KIKO와 같이 위험성향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의 이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환포지션을 정확하게 도출해 적합한 헤지수단과 거래여부를 결정하고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을 통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셋째,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위축된 실물경기가 다소 되살아나는 국면이므로 기업 나름의 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적인 재고 및 생산관리를 통한 비용절감노력이 요구된다.

【표 4-1】 주체별 환위험 관리방안

정부 및 유관기관	충남도	중소기업	시중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시장 변동성 안정화 개입 • 금융지원 확대 및 모니터링 • 맞춤형 환율교육 및 컨설팅 지원 • 환위험관리 전문가 양성 •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위험관리 전문인력풀 구축 -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마련 - U-환율컨설팅 지원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사원 중심의 환율 교육 실시 • 환변동보험 적극 활용 • 신용등급 개선노력 (자기자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동향 및 환위험 관리기법 공유 • 대출신사기준 완화 • 안정적 파생금융상품 개발

2) 원자재 확보안 개선방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개별 중소기업 들은 원가절감, 경영혁신, 생산성 제고, 제품가격 인상 등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의 원자재 가격급등은 국제적 투기수요 및 고환율, 유가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감내하기에 너무 부담이 커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시장경제 및 경쟁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중점을 두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원자재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안정을 지원하고, 내점매석 등 시장왜곡에 대한 감시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원자재 구매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관세인하 등을 통한 원자재 가격상승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원자재 가격변동이 합리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입이 시급하다. 넷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부담 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1. 원자재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원자재 공동구매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간 협력사업(협동화 사업)중에 원자재 공동구매의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원자재 수급난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므로 충남도 차원에서 원자재 수급난이 심각할 경우, 한시적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업종별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원자재 공동구매를 위한 지원자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 지원

원자재 수급난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61.8%가 원자재구매 대금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도 차원의 원자재 구매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청 등이 수출용 원부자재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과 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큰 실정이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난이 심각할 경우,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에 대한 특별 정책자금을 한시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거나 저리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는 영향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원자재 수입에서 최종생산단계까지의 과정상 특정 생산단계로의 일방적인 가격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생산자간 협의체 구성 또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애로 등을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업종별 협의체구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③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원자재 가격 및 수급상황, 도내 산업에 미치

[표 4-2]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한 주체별 지원방안 및 역할

지원 주체	원자재 수급안정	원자재 구매부담 완화 (금융 및 세제지원)	납품단가 반영 현실화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축 원자재 방출규모· 품목 확대(조달청) ·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 정보시스템 구축(중기청) · 해외 자원확보 강화 및 장기공급계약 확대 · 주요 원자재 증장기 조달 계획 수립(지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 지원확대(중기청) · 원자재 구매자금 보증확대(기획재정부, 금융위) · 긴급할당과제인하(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납품가격 현실화(기재부) · 민간 납품단기 합리적 반영유도(공정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지식경제부, 국제청)
충남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공동구매 지원 · 비상대책반 운영 및 원자재 수급실태 조사 · 원자재구매 특별정책자금 · 저리융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협의체 구성 지원(단계별 생산자가 협의체) · 업계 간담회 개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점매석 감시강화
중소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 신축적인생산 재고관리· 전사적 사내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협의체 참여 및 구두방송 지양 ·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사례 적극 신고